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3년 9월 제282호 http://cnmhs.net

주식회사 대미농수산
대표 정 관 성 (17회)
010-5401-5090
대전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47 (용전동)
Tel (042) 638-4988 Fax 638-4983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정관성 편집인 : 임동현 인쇄인 : 민운기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눈부시게 발전한 모교에서 젊음 만끽하는 하루…"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 10월 21일(토) 개최, 다양한 즐길거리 준비

한해 최대 행사인 총동문체육대회가 4년만에 다시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19년에 열린 제31회 체육대회 개회식 모습)

모교 동문들의 한 해 최대행사로 축제와 화합의 장인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로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오는 10월 21일(토요일) 모교에서 열린다. 충남기계공고 전통 계승과 총동문회의 건재를 보여주어야 하는 총동문체육대회는 매년 집행부의 시험대가 되는 행사로 대회를 멋지게 펼쳐야 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23회 동문들이 주관하여 최병무 추진위원장과 동문들이 총동문회 집행부와 잘 협조하여 발로 뛰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에 열린 제31회 대회에 이어 열리는 32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 동문회와 회수, 직장 동문회 등 단체를 비롯하여 개인들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올해는 특히 모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총동문체육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23회 동문회가 조직을 완성하고 총동문회 집행부 임원과 더불어 매일 정성을 다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충기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는 총동문회의 지속적인 전진은 체육대회에서 큰 힘을 받고 있다. 체육대회에 전국의 동문회와 동문들이 협조가 절대적이다. 올해 주관기수인 23회 동문회는 체육대회 추진위원장인 최병무 동문의 리더로 지난 6월 체육대회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회 동문회는 이를 위해 2천만원의 기금을 후원했다. 아울러 제32회 체육대회가 그동안의 행사를 잘 보완하여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총동문회와 소통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제32회 체육대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충남기공총동문회기 입장을 시작으로 10시 45분까지 개회식을 치른다. 이어 2부 행사로 족구와 계주 등 체육대회가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해당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3부 행사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명랑가족 운동회 및 충기역사 퀴즈왕선발대회 등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4부 행사는 오후 3시부터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이 열려 즐거운 잔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 장터마당에 참여할 동문은 총동문회 사무처와 품질. 가격. 사용장소 등 협의를 마쳐야 한다. 텐트배정은 각 회수 위주로 설치하며, 플래카드 설치는 동문들의 협조를 받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23회 최병무 추진위원장은 "한 해 총동문행사의 최고 행사인 체육대회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모교에서 많은 동문 가족들이 참석해 즐거운 하루를 즐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관성 총동문회장은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는 충남기계공고의 자랑스런 동문으로서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총동문체육대회야말로 총동문회의 전통계승과 발전이 걸린 중요한 행사"라며 "일 년에 한번 열리는 총동문체육대회에 전국의 지역과 직장 동문들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적극 참여하여 충기 동문들이 화목한 모습을 이어가자"고 간절하게 당부했다. 10월 21일 토요일은 모교에서 충기인들과 젊음을 만끽하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 개최 안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3년 10월 21일(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모교 대운동장
◈종목 : 족구, 계주, 줄다리기, 명랑운동회, 충기역사퀴즈왕선발대회,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연락처: **총동문체육대회추진위원장 23회 최병무(010-6430-6165)**

총동문회사무총장 민운기(010-8255-0084) / 총동문회사무국장 임정호(010-4411-5218)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장 정 관 성

“넉넉한 먹거리와 볼거리, 행운권 추첨으로 선물 한아름”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 임원회의〉 선 · 후배 함께 손잡고 달리기 등 프로그램 준비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성공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기위하여 22대 집행부는 정관성 회장을 비롯하여 최병무(23회) 체육대회추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31일(목) 오후 6시 30분 유성의 다해어죽에서 모임을 가졌다.

정관성 회장과 민운기 사무총장은 3년여 간 중단되었던 체육대회가 다시 열리느니 만큼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도록 안내를 잘 하여 화합과 단결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행사종목으로는 족구와 선.후배가 함께 손잡고 달리기, 계주, 줄다리기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동문가족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동문부인과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넉넉한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행운권 추첨 등을 통하여 많은 동문들이 양손 가득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관성 총동문회장은 “체육대회가 3만5천여 동문의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적극 활동하여 10월의 가장 멋진 날 21일에 모교 운동장에서 시연하자”고 강조했다.

– 송예경 총동문회 총무 –

“충기는 내 마지막 찬란한 삶이 될 것”

서울동문회, 체육대회 경기북부와 동행

서울동문회는 9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사당역 부근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시간 가는줄 모르게 회포를 풀고 우의를 다졌다.

이날 모임에는 경기북부에서 최기춘(15회 수석부회장) 동문이 대표로 참석하여 10월 21일 총동문체육대회에 서울동문들과의 동행을 요청하였고 서울동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하기로 하였다.

이번 23회 동문들이 주관하는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 잔칫집에는 서울과 경기북부 동문들이 하나가 되어 최고의 우정을 뽑내게 되었다.

“계절마다 지나간 청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가슴속에 고딩시절의 청춘은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라는 시구절이 저절로 떠오른다.

충기를 통해 시작하였고 충기를 통한 인생은 아름다웠다. 충기는 내 마지막 찬란한 삶이 될 것이다. 이날 서울동문회에서는 50만원을 체육대회에 찬조하기로 결의했다. 물론 개인적인 찬조도 이어질 것이다.

“체육대회 때도 손잡고 참석합시다”

15회동문회 부부동반 가을 속으로 여행

15회동문회(회장 문광식) 동기들은 9월 15일 정기모임을 갖고 부부동반으로 익어가는 가을 속으로 우정의 여행을 떠났다. 참석한 19명은 손에 손을 잡고 지금까지 부단히 열심히 살았고 참 잘 살아왔다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신명나게 소중한 친구들과 값진 나눔동행을 다짐했다.

문득 옛 선현이 읊은 “邯鄲之夢(한단지몽)이요(한바탕 꿈같은 인생사) 班荊道故(반형도고)라 (옛 친구와 정을 나누는 것은) 황화만절(黃花晩節)이로세(국화는 서리를 맞으며 꽃을 피운다는 뜻으로, 늙어서도 고상한 절조를 지킴을 이르는 말)”라는 시가 생각난다.

유난히 부인들과 금슬이 좋은 15회 동문들은 총동문체육대회에 50만원을 성금하기로 하고 그 날도 부인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동행하기로 약속했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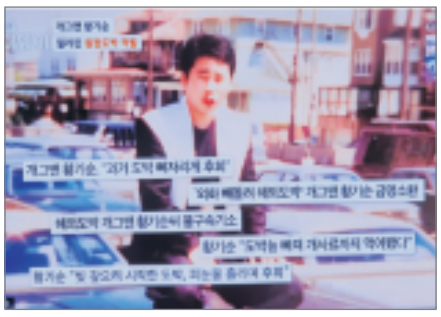
경기도 여주 · 이천 · 광주 동문회 발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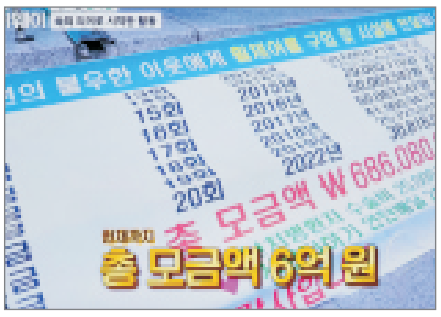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여주, 이천, 광주지역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동문들의 모임 소식을 접하면서 부러웠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풍요롭고 살기에 좋은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에서 정겨운 동문님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동문회를 발족시키고자 합니다.

※ 연락처 = 추진위원장 이상필(16회) 010-5448-2935. 경기도 이천 안흥동 거주

“담배꽁초 주우시며 아들 죄를 참회한 모친의 정성에 감동”

황기순(17회) 동문 감동 인생이야기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방영





9월 10일에 방영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 80-90년대 개그계를 평정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황기순(17회) 동문의 인생 이야기가 펼쳐졌다.

황기순 동문은 만 19세 나이에 M사 개그 콘테스트 2기에서 금상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는 ‘청춘만만세’, ‘일요일 밤의 대행진’등 간판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유행어 “척 보면 앱니다”로 인기를 끌며 스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황 동문은 예전에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은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개그맨이 될 수 있을지 몰랐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코미디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금상을 수상하여 개그맨이 되었다.

이후 ‘청춘행진곡’ 등에 출연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워낙 빠른 성공과 인기 때문인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라도 경조사에는 꼭 간 이유가 고스톱이 너무 재밌어서였다고. 하지만 지난 1997년 뉴스를 통해 황기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알려졌다. 그는 “너무 바쁜 일정에 유일하게 챙겼던 것이 경조사”라며 “경조사를 가서 고스톱을 치는 게 재밌었다. 수입이 많으니, 돈을 잃어도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갔다.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도 본전 생각이 났다”며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황기순 동문은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돌파구로 카지노를 택했다”며 “30분 만에 8,000달러를 잃었다. 처음에 돈을 잃었을 때는 다음에 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5번 정도 가니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다. 너무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며 “무대에서 장막이 내려오듯 한 느낌이었다.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죽어야 하나, 어떻게 죽어야지. 현실은 배고프고 뭘 먹어야 하는데, 밥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배가 터질 때까지 쑤셔 넣었다. 버텨야 하니까”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김정렬 선배가 나를 만나러 필리핀에 왔다. 선배가 내게 돈 봉투를 건넸는데 봉투에 ‘기순아 죽지만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희망이었다. 포기하지말라는 의지를 세워줬다”고 말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황기순 동문의 둘째 누나 황도순 씨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보니 엄마가 사라졌다. 나중에 뭔가를 비닐봉지에 담아오셨다. 담배꽁초를 주워 오셨다. 왜냐하면 길을 청소하면서 담배꽁초를 하나 주울 때마다 우리 기순이 빚 100원씩이라도 감해달라고 그걸 주워서 안 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엄마, 왜 담배꽁초를 안 버리냐’고 물었더니 ‘내가 우리 기순이 올 때까지 얼마나 모으나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며 살아있는 아들이 감사해 더 열심히 담배꽁초를 주웠다고 밝혔다. 황기순이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커다란 쌀자루 5개 분량의 담배꽁초를 모았다고 전했다.

탄탄대로의 스타에서 원정도박이라는 비난과 시련을 가족의 사랑과 동료 연예인들의 격려로 이겨내고 안전하게 귀국하여 이후 참회하는 마음으로 21년째 하고 있는 ‘거리모금 기부 행사’ 현장도 공개되었다. 자전거를 타고거리모금 기부행사를 시작한 초창기에는 오응수, 이우정 선배 등 많은 동문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다.

가수 박상민부터 트롯 여신 김용임, 트롯 아이돌 김성환, 진성, 박상철, 조영구, 김정렬까지 모금 행사를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 준 동료들의 훈훈하고 신나는 거리 무대도 만나볼 수 있었다.

본방사수 하면서 정말 착한 황기순 선배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고 인간적이고 심성이 고우신 선배님이야말로 진짜 대스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시는 길에 돈길 꽃길만 이어지기를 기원드린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선후배 동문이 가장 큰 힘 되기에, 한없이 자랑스럽다”

정치인 김종천 동문 재기위해 고향 금산에 폭풍장어 맛집 개업

김종천(22회, 전 대전시의회 의장) 동문이 고향인 충남 금산에서 폭풍장어 금산추부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했다.

김종천 동문은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한 당당한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최연소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하였고, 운영위원장을 거쳐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대전서구 제5선거구에 당선, 3선에 성공했으며,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김 동문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초심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국 시 · 도의장협의회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각각 역임하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협의회

김종천 동문이 고향 금산에서 폭풍장어 금산추부점을 개업했다.

의(KDLC) 공동사무총장도 맡은 이력이 있다.

옛말에 인유실족 마유실제 (人有失足 馬有失蹄)라고 했다. 사람도 발을 헛디딜 수 있고 말도 발굽을 헛디딜 수 있다는 뜻으로 누구나 다 실수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김종천 동문은 정치인으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비상을 꿈꾸고 있다. 그 배경에는 충남기계공고 선후배 동문들이 가장 큰 축복이고 힘이 되기에, 김 동문은 항상 한없이 자랑스럽다고 입버릇처럼 애기한다. 재기를 위해 고향에서 개업한 폭풍장어 금산추부점은 지역 맛집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주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사길 7(마전리 445-1).

– 임동현 편집위원장 –

“10월 총동문체육대회 최우선 참가”

공사모 정기모임 동문 화합 노력

공사모(대전지역 공무원 모임)는 지난 9월 14일 대전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오는 10월 21일 총동문체육대회에 최우선적으로 참석하여 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공사모는 충남기계공고 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았으며 모교의 위상 제고에도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명실상부하게 지금의 모교로 발돋움을 하게끔 한 공로가 참으로 크다. 현재 30여 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으며 안성순(10회) 회장과 민병기(12회) 총무가 이끌고 있다.

“충기 동문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정상복 동문 대전보건대 전임교수 임용

정상복 동문(24회)이 이번 가을 학기부터 대전보건대학교 의과학대학 방사선학과에 전임교수로 임용되었다. 정 동문은 그동안 부인과 함께 대전 둔산지역에서 둔산간호학원을 운영해왔다.

정상복 동문은 “전문직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연구와 인재양성에 정진하겠으며, 무엇보다 충남기계공고 동문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32회총동문체육대회에서 만나자”

20회동문회 상주에서 골프겸해 모임

20회동문회(회장 여명찬 총무 김인한)는 15일 경북 상주 뉴스프링빌CC에서 골프라운딩으로 9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여명찬 회장은 “라운딩으로 20회동기들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며 “10월 21일에 열리는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 정재훈 20회 동문 –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전북 무주 설천체육공원에서 '날다' 그리고 '잇다'

충기FC 야유회 동문들 부인 · 자녀와 물놀이하며 스트레스 해소

충기FC(회장 김성기)는 지난 8월 26일 설천체육공원 (전북 무주)에서 동문들과 부인, 자녀 등이 야유회를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시원한 여가를 보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모교운동장에서 버스를 타고 무주 설천운동장으로 출발하여 오전 10시 청팀. 백팀으로 나눠 총 3게임씩 운동을 하고 12시 늘봄가든에서 점심식사와 물놀이를 하면서 맘껏 휴식을 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 대전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의 단결 화합은 충기 FC에서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정관성 총동문회장이 20만원을 찬조하였고, 17회 송태헌(저녁 찬조), 18회 황의순(노래방), 21회 최동준(과자, 음료수), 22회 김갑수(맥주 2박스, 소주 1박스), 23회 고해수 처남 돈방제주돼지 10만원, 홍능맛집 사장 맥주 2박스 등 찬조에 감사드린다. 이밖에 김덕기(15) 10만원, 한범석(17) 5만원, 송태헌(17) 10만원, 황의순(18) 20만원, 최상도(18) 10만원, 김양곤(20) 10만원, 최동준(21) 50만원, 김종천 (22) 10만원, 김갑수(22) 10만원, 하헌영(23) 10만원, 한병수(23) 10만원, 임정호(23) 10만원, 이주한 (23) 10만원, 고해수(23) 10만원, 김경한(24) 10만원, 김형찬(24) 15만원, 강노산(24) 10만원, 이상희 (24) 10만원, 김영도(25) 10만원, 홍준용(25) 10만원, 노창현(25) 10만원, 정희철(28) 5만원, 박병국(29) 10만원, 김환웅(30) 5만원이 찬조금으로 입금됐다.

충기FC 동문들이 가족들과 함께 전북 무주에서 시원한 야유회를 즐기고 있다.

축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충기FC에 물심양면으로 찬조해준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린다.

– 김성기 충기FC회장 –

대전고와 최종예선 콜드게임승 거둬

충기동문야구팀 이마트배 전국대회 본선진출

충기동문야구팀이 9월 20일 있었던 이마트배 전국고교동문 야구대회 마지막 지역 예선에서 프로출신 4명이 출전한 대전고 OB팀 을 4회 10대0 콜드게임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10월부터 열리는 전국 24강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충기야구팀은 대전고와의 경기에서 평균 방어율 0.1점대로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막강한 공격을 펼쳐 투타의 밸런스가 완벽한 게임 이었다. 본선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만큼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김흥순(26회) 동문 –

총동문체육대회 참석 원칙으로 삼아

21회전기과 대전지역 동기들 모임

대전에 사는 전기과 21회(회장 오원석) 동기들은 9월 5일(화) 저녁 유성소재 한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농익는 인생의 즐거움 중에 즐거움은 고딩임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파하는 대로 총알같이 달려온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2차 3차로 늦은 밤까지 함께 자리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수다떨고 재잘거리는 모습은 영락없이 낭랑18세다.

전기과 21회 동기들은 연2회 정기모임을 갖고 총동문체육대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올봄에는 1박 2일로 장태산에서 야유회를 가졌으며 11월에는 연말 모임을 갖고.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대전 번개에 모인 친구들은 오원석, 강기환, 김광수, 신국현, 오주철, 신용대, 임재웅, 강전갑, 김규덕, 박영은, 한경수, 주창우 등 12명이다.

– 김광수 전기과21회 총무 –

총동문체육대회 단체 참석, 버스 대절

경기북부동문회. 30명정도 참석 예상

경기북부동문회는 9월 14일 일산 소재 삼계탕집에서 9월 정기모임을 갖고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물으면서 찐한 동문애를 나누었다.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은 우리 동문 전체의 활력소가 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겹겹이 쌓여진 우정은 서로를 보듬고 있었다. 우리 生에 가장 젊은 오늘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다가오는 총동문체육대회(10월21일)참석 여부를 두고 자유로운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어 9월 15일까지 참석 여부를 전화로 파악한 결과 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 동문들과 연합하여 총동문체육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9월 15일까지 체육대회 참석 진행상황은 송영호, 김성수, 김용진, 유재환, 최성구, 강희창, 정인창, 김민철, 김승환, 최현국, 최재흥, 최기춘, 현정배, 김경수, 임동현, 김태경, 박덕신, 신병철, 강문식 동문이 참석하기로 했고, 류운선 한흥석, 양연호, 최중호, 동문은 조율중이다. 이로서 서울 동문과 연합하면 30명 내외가 참석이 가능하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미래의 꿈 심어 정성껏 기르고, 피우는 교육”

〈박인규 교장 인터뷰〉 고급진(眞)기술 · 풍부한 감성 · 행복한 삶으로 경영

모교 최초 공개모집으로 교장에 부임한 박인규(朴寅圭) 교장은 대전한밭고(1회)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교육과에 진학하여 특성화고교 교사로 교육일선에 투신해 왔다. 이후 투철한 교육관으로 충남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품과 실력을 갖춘 교사로 거듭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박 교장의 교직 경력은 대덕공고(현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에 처음 부임한 후 대전전자고(현 대전전자디자인고), 대덕전자기계고(현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를 거쳐, 대전기술정보학교(현 대전산업정보고) 교사를 지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직업교육)으로 지내며 교육행정 실무를, 한밭중 교장으로 학교 경영역량을 키운 후 대전도시과학고 교장에 부임했다. 대전도시과학고 부임 후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학부모와 학교 주변 주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충남기계공고로 이임하였다.

박인규 교장은 “학교 경영이란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험난한 바다에서 학교라는 배를 목적지로 몰고 나아가는 항해와 같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해류, 날씨, 해풍처럼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대응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며, 방향성을 잡은 후에는 전진하기 위해서 나와 우리를 넘어선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인화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서로 마음만 맞으면 못해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인화 단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연료, 먹거리, 선박 유지보수 등이 필요하듯이 학교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교원 연수 지원, 지역 사회와의 협업, 예산 확보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전을 고급진(眞)기술 · 풍부한 감성 · 행복한 삶으로 설정하고 학교를 경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인규 교장이 교장실에서 4차산업에 부응하는 학교경영 포부를 밝히고 있다.

충남기계공고의 좋은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고급진 기술교육과 현장중심 학습으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을 익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인문학적 혜안을 갖춘 학생을 길러낼 것이며, 학생 스스로가 본인의 진로 선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맞춤식 진로 교육으로 미래의 꿈을 심어 정성껏 기르고, 피우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모교 박인규 교장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제21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박인규입니다. 중부권 직업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교에 부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60년 간 3만 5천여 명의 기술인을 배출한 명문 특성화고등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과 개편을 통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우수 산업 인재 양성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마트팩토리과를 선두로 스마트융합기계과, 철도차량과, 스마트시티과는 이미 학과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3년 디지털융합설비과, 24년 디지털융합설계과도 순차적으로 학과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올곧게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제조업과 관련 있는 공업계열 기피 현상으로 인해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국가 경제의 기틀이 되는 산업인력의 배출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도 모으겠습니다. 홈베이스나 휘트니스센터 등 학생 복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학생 자치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기술인의 꿈을 구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배우고 익힘에 학교 현장의 교육 가족뿐만 아니라, 충남기계공고의 교육공동체인 전통의 동문회와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르고 창의적인 기술 인재로 자라나 더욱 학교를 빛내는 ‘충기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큰 격려로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박인규

총동문골프대회 개최 손꼽아 기다려

22회 동문들 골프사랑 5년째 이어져

22회동문골프모임(이하 투투회)이 5년째 진행되고 있다.

어느새 5대째 이르러 이구형 회장과 부회장 이희국, 임한명 총무가 이끌고 있고 23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매월 4~5팀이 셋째 주 금요일에 실력을 뽐내고 있다.

상위 1조는 이븐파 그룹으로 컨디션이 좋으면 언더파를 치는 실력자들이다. 9월 모임은 골프존카운티 천안에서 15일 열려 차서백 회원이 72타를 쳐서 1위를 했지만 지난번 우승으로(수상은 1회로 한정되어 있음)차선자인 이용재회원이(82타) 신페리오 우승, 메달리스트는 (80타) 이영우회원이 차지했다.

10월 모임은 어떤회원이 우승할지는 대략 예감은 오지만 항상 노력하는 친구들이기에 예상외의 실력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11월 회장배 대회는 2박3일 제주 해비치에서 진행되며 투투회 발전과 우정이 한층 빛날 것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친구들을 만나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멋진 풍경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조금은 쉼이요 행복이다.”이라는 이구형 회장의 인사말과 건배제의로 한껏 무르익은 9월의 오후는 서서히 땅거미가 지고 저물어간다. 22회 회원들은 “총동문골프대회 개최가 결정되면 맘껏 기량을 뽑낼 날만 기다린다”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우승은 나의 것이라고~~ 회원들은 또한 10월 21일에 실시하는 총동문체육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는 이보윤 22회동문회장의 마지막 인사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수입 현황

기간 : 2023년 8월 29일 ~ 2023년 9월 20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모교사랑" 자동이체

방	1	박만영	30,000	기	17	김종수	10,000	기	23	임정호	10,000
방	1	백운길	10,000	기	17	김진덕	10,000	기	23	한병수	10,000
상	1	오응수	10,000	기	17	류승정	10,000	기	24	김성기	10,000
광	3	서한수	20,000	기	17	민운기	10,000	기	24	김형찬	10,000
전	3	이우정	20,000	기	17	박환정	10,000	기	24	박종호	10,000
방	4	송석범	10,000	기	17	서승영	10,000	기	24	안영호	10,000
방	7	김민주	10,000	기	17	송선호	10,000	기	24	이용주	10,000
광	8	김재겸	10,000	기	17	양희곤	10,000	기	25	강신철	10,000
전	8	임헌표	10,000	기	17	오명진	10,000	기	25	홍준용	10,000
자	8	정기원	20,000	기	17	윤재경	10,000	기	26	김윤태	10,000
전	9	임세환고문	10,000	기	17	이상봉	10,000	기	26	류한의	20,000
방	10	김영갑	10,000	기	17	정관성	20,000	기	27	송형태	10,000
자	10	김창길	10,000	기	17	정왕규	10,000	기	28	강문식	10,000
전	11	김용진	10,000	전	18	마수용	10,000	기	31	강두형	10,000
전	11	오연진	10,000	기	19	임운택	10,000	기	31	권오진	10,000
광	11	조동호	10,000	전	19	임형일	10,000	기	31	김태용	10,000
기	12	권석환	10,000	기	20	김동로	10,000	기	31	남지현	10,000
전	12	김기용	10,000	기	20	박경하	100,000	기	31	오선균	10,000
기	12	라기원	10,000	기	21	김기영	10,000	기	33	이명호	10,000
기	12	전종현	100,000	기	21	김용근	10,000	기	33	이재상	20,000
기	12	천명재	10,000	배관	21	박찬권	10,000	기	33	전우창	10,000
기	12	황규표	10,000	기	21	오흥석	10,000	전	34	공대성	10,000
기	13	마평춘	5,000	기	21	장명국	10,000	기	35	김정규	10,000
화	13	박대균	10,000	기	21	진춘식	10,000	기	37	박재현	20,000
기	13	윤성덕	10,000	기	21	한석원	10,000	설비	54	조승현	10,000
기	14	김병갑	10,000	배관	21	황경아	20,000				
기	14	이종업	10,000	기	22	김갑수	10,000				
기	14	임화섭	10,000	기	22	김명수	10,000				
기	14	한경환	20,000	전	22	박종선	10,000				
전	16	김희곤	10,000	기	22	이보윤	10,000				
기	16	양희대	10,000	기	22	정기채	10,000				
배관	16	임재록	10,000	기	22	조영백	10,000				
전	16	장보환	20,000	전	23	김은철	10,000				
기	16	조성서	10,000	기	23	윤인섭	10,000				
기	17	권오섭	10,000	기	23	이봉준	10,000				
기	17	김용택	10,000	기	23	이주한	1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24	이용주	50,000
기	39	김동연	50,000
금형	52	이승원	50,000

제32회 체육대회성금

상	1	오응수	200,000	금	16	여헌구	50,000				
전	3	오성민	50,000	기	17	고종만	200,000				
광	3	김영복	100,000	기	17	김홍기	100,000				
기	8	신도성	300,000	금	17	신기철	100,000				
전	8	유상준	100,000	기	17	윤영문	200,000				
방	10	김영갑	100,000	기	17	이상봉	200,000				
자	10	김창길	1,000,000	기	18	박종용	1,000,000				
기	12	이광우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0				
전	12	한영식	1,000,000	기	20	이석래	50,000				
기	13	백두현 (테크노충우회)	1,000,000	기	21	최동준 (테크노충우회)	1,000,000				
전	13	한규환	50,000	금	22	이택연	100,000				
기	14	임화섭	300,000	전	22	정찬희	100,000				
기	15	정두현	300,000	배관	29	임진우 (테크노충우회)	300,000				
기	16	곽상명 (곽보성)	100,000	기	31	권오진	500,000				

단체

15회동문회	500,000	기성동문회	300,000
17기골프동우회	1,000,000	서울동문회	500,000
17회동문회	1,000,000	안양동문회	500,000
22회동문회	500,000	이일회(21회)	1,000,000
경기북부동문회	500,000	충기FC	1,000,000
구충회	200,000	화공과동문회	500,000

연회비 및 발전기금

자	1	류 선	20,000	자	11	차형철	20,000
방	2	황인정	20,000	기	12	김대환	20,000
전	3	홍명표	20,000	화	13	안영찬	20,000
광	3	홍성민	20,000	기	13	이창현	20,000
자	4	윤재원	20,000	기	14	김성환	50,000
방	7	남임숙	20,000	기	14	최재흥	20,000
기	8	안상규	20,000	기	17	김원근	20,000
전	8	이철희	20,000	전	17	임한모	20,000
전	9	김창섭	20,000	전	21	남궁만	20,000
전	9	오옥균	20,000			이찬혁	20,000

정년 이종업교장에게 행운의 열쇠

모교 기능부후원회, 퇴임 앞두고 전달

모교 기능부후원회(회장 12회 전종현, 부회장 21회 최동준)는 8월 25일 모교 교장실에서 모교의 기능 발전을 위하여 노력과 헌신을 한 이종업 교장(14회)에게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며 공을 기렸다.

〈인간관계에서 소시오패스 대처 요령〉

요즘 뉴스를 보면 약자를 괴롭히는 소시오패스가 눈에 많이 띈다. 이로 인해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본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사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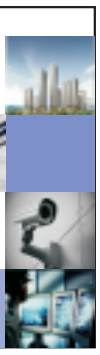
소시오패스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베푸는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매우 계산적이다.
2.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3. 자주 약속을 어긴다.
4.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강한 것 같지만,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데 능하다.
5. 자신의 잘못이 들통 나면 동정심에 호소한다.
6. 반드시 복수한다.
7. 거짓말에 능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8. 스스로 '대단한 사람' 이라고 믿는 '병적인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편해시협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세종점 ☎044-867-2202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근로자파견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예인아트 팩토리
서울 · 경기 수도권
상업공간 주거공간 설치미술
예인아트 팩토리
궁금하신점 및 문의사항은 대표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직접 방문해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봉연(23회) 010 5359 0968
공동대표 오길수(22회) 010 8879 6999
031 577 0968
lby6969@naver.com

(주)필 엔 텍
FIL & TECH
대표이사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20 (가온비즈타워 220~222호)
TEL. (042) 626-8548
팩 스. (042) 626-8549

SH (주) 서한 ENC
MIURA 충청대리점
• 기계설비1종 설계 및 시공
• 열사용기자재 취급 및 시공
• 기계소방용품 및 안전용품 취급
• 안전관리 설계 및 시공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산업용 탱크 및 식품기계
차장 김 동 연 (39회)
010.9813.0139
042.935.0280
042.935.0281
starkjpn@naver.com
www.seohanenc.co.kr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37-9, B동 2층 202호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KW 경우금속주식회사
【구리 동 파이프 판매업】
대표이사 강 희 창 (12회)
010-3568-632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129번길 10
TEL : (031) 946-9813~4
FAX : (031) 946-9815
E-mail : kyungwoo9815@naver.com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장공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 : (042) 670-7877, 7233
FAX : (042) 670-7876

싱크마스터
N : 싱크마스터
대표 이 승 원 (52회)
010-5823-2171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96번길 34
https://smartstore.naver.com/sinkmaster
주방기기
주방싱크볼
사각싱크볼
원앙, 아스타 네모
싱크볼, 교체, 설치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meritz 메리츠화재

걱정은 메리츠화재가 대신할게요
FP/ 대전본부
오 규 성 (33회)
Mobile. 010-9551-0418
매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T.042-337-4004 F.042-337-4009
34903.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빌딩 2층 www.meritzfire.com

HYUNDAI GENESIS
카마스터
이 용 주 (24회)
010-3404-6989
현대자동차
대전선화대리점
대전 중구 대종 545(선화동)
신차상담/할부/리스/렌트
TEL : 042-254-9000
FAX : 042-254-4000

큰우리요양병원
중풍, 치매, 뇌졸중 및 노인성 질환 호스피스 전문

병원장 오 상 근 (6회)
010-2972-5354
대전시 유성구 학하서로 99 (덕명동 171-6)
Tel. 042-522-1001
Fax. 042-526-1100
사회복지법인 밀알 http://milalbj.or.kr
대표이사 오 상 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87 화성빌딩 4층
T. 042-627-0135 F. 042-716-7119
※후원계좌 : 하나 646-508185-00105 사회복지법인 밀알